

또래지위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특성

박주희*(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은 해(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특성이 또래지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아동의 연령과 성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다섯 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선정된 인기, 보통, 무시, 거부아 각 40명으로 총 160명의 아동이었으며, 연령별 구성은 만 5세와 6세가 각 80명이었고, 성별 구성은 남녀 각 8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지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회성 측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박주희와 이은해(2001)가 개발한 척도의 하위 척도를 사용하여 또래간 상호작용에서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을 평가하였고, 연구자가 별도로 작성한 문항을 사용하여 또래관계에서의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또래지위, 연령, 성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행동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삼원변량 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또래관계에서의 사교성은 또래지위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인기아의 사교성 점수가 보통, 무시, 거부아에 비해 높았고, 거부아의 사교성 점수는 무시아 보다 더 낮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만 6세 아동의 사교성 점수가 5세 아동보다 높았다.

둘째, 친사회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또래지위, 연령, 성의 주효과와 함께 지위×성, 연령×성, 그리고 지위×연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사회성 점수의 성에 따른 차이는 또래지위와 연령에 따라 달라서 인기, 보통, 무시아의 친사회성 점수는 남녀 아동이 대체로 비슷한 반면 거부되는 아동의 친사회성 점수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다. 또한 5세 아동의 경우 남녀 아동의 친사회성 점수가 비슷한 반면, 6세 아동의 경우 여아의 친사회성 점수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도성의 경우 또래지위에 따른 주효과만이 유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기아의 주도성 점수가 나머지 세 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격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또래지위와 성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아의 공격성 점수는 인기, 보통, 무시아 보다 높았으며, 남아의 공격성 점수가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취학 전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 행동특성은 연령과 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히 인기아와 거부되는 아동의 행동특성이 두드러지게 다른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또래집단에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